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가장 세계화된 우리 민족이 21세기를 주도해나갈 것

머릿글 CyberMBA 회장 유중하

11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정태익

커버스토리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이사장 이원설

나의 경영이야기 우먼타임스(주) 신숙희

지자체특강 前 삼미그룹 부회장 서상록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철도인력개발원 서비스아카데미 부장 강희선

회원&연구원소식 / 오페라 이순신 한려 합동공연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기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전상백

리더십이야기 /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원설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이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1

2005 November

등록번호 [네메움]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5년 11월 1일 발행인: 장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DII) 주소: 136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500(☎)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디자인코드 www.cod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92 5323

희망찬 세상을 만드는 기업

품질 / 환경 / 안전보건 통합경영체제 인증업체
(ISO 9001) (ISO 14001) (KGS/OHSAS 18001)

SCG GROUP



환경을 지켜주는 청정에너지, 도시가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www.seoulgas.co.kr

■ 매일 4일은 가스안전점검의 날입니다. ■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

E-Learning과 인간경쟁

유종하 CyberMBA 회장, 前 외무부 장관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Gutenberg, Johannes)가 인쇄기를 처음 발명한 후 일어난 변화는 성서가 대량으로 인쇄되는 것이었고, 곧이어 라틴어로 된 성서가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것이었다. 독일어로 대량의 성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Protest)한다는 운동을 펼쳤고, 이를 통하여 개신교(Protestantism)의 종교혁명이 일어났다. 인쇄기로 서적이 인쇄되면서 또한 문예부흥이 일어났다.

1765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개량증기기관을 발명한 것이 방적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어 유리산업, 기계산업이 이어졌다. 증기기관차가 발명된 것은 거의 60년 이후이나 기차가 발명됨으로 인간생활에서 거리가 극복되고 이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신문이 발간되어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고 은행이 생겨나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권력이 처음으로 국경 끝까지 미치게 되었다. 방직산업은 노예제도를 가져왔고 자본과 시장 및 노동의 이동은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유발하고 여기에 병기의 발달이 겹쳐져 1·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의 도입과 IT산업의 대두는 인류를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후 세 번째의 대산업혁명으로 이끌고 있다. 지금의 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보다 50배, 100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뒷전에서 있었다가 나라자체를 잃었던 한국은 요행이 IT혁명의 선두에서 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수천년 만에 한 번 찾아 온 것이다. 한국은 첫째 그 동안 제조업의 발달을 통해서 IT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경제적 성장 단계를 완료하였으며, 둘째 미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IT분야의 인적자원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셋째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하여 친컴퓨터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적 사고방식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IT산업은 지식정보산업이고 이 산업발전의 관건은 교육이다. 재래식 교육의 한계는 역시 지리적 제약, 공간적 제약 그리고 시설의 제약이다. 그러나 'e-Learning'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한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일시에 많은 인원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다. 싱가포르 대학은 미국 MIT 석사과정을 e-Learning으로 도입하여 지구의 반을 넘어선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MIT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e-Learning은 'onsite'로 불리는 캠퍼스교육보다 학습효과가 더 우수하고 재미있고 저렴해서 그 시장 또한 더욱 크다. 오늘날 제조업이 급속히 줄어드는(미국은 20%) 산업구조하의 구조조정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변화속도 또한 과거의 수십 배에 달한다.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과 기술은 오래가야 10년을 버티지 못한다. 반면 사람의 수명과 노동기간은 과거에 비해서 크게 길어졌다. 따라서 온라인에 의한 평생교육, 직업교육이 전문교육의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 이 경쟁에서 앞을 달리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이 경쟁에서 뒤지는 개인과 기업 및 국가는 도태될 것이다. 그것도 로켓의 속도로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人間**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1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1975년 러시아 외무부 입성 / 인도 뭄바이 총영사 / 미얀마 대사 / 러시아 외무부 아주2국장

11월 한러 정상회담과 한러관계의 현재와 미래

1426회 11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올해로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15년이 되었다.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벌써 열 네번째 한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에 양국은 현재의 협력 속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한러공동선언문에서 규정했던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30일 한러 수교 15주년을 기념한 메시지에서 노 대통령은 1990년 양국의 수교가 냉전체제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복원하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도 양국간 상호 신뢰하는 동반자 관계가 양국민간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며 양국이 북핵문제 공조 등 주요 국제문제에 같은 입장을 견지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정상들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동북아지역은 탈냉전 이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러시아는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 정부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움직임, 외교통상부의 양국간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사업의 일환인 러시아 거점도시기반구축사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양국 문화교류 등 현안 과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 달 열리는 한러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바셴초프 신임 러시아 대사를 초빙하여 한러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연세대 정외과 졸업 / 연세대 정치학 석사 /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육군 제3사관학교 교관 / 연세대, 이화여대, 강원대, 중앙대, 홍익대, 캐나다 빅토리아대 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 교수
<저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북한 핵의 문제

세계사는 전쟁사, 미국 군사력의 실상과 6자회담 및 한미관계

1427회 11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2001년 미국에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테러리즘은 미국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가 안보정책에서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 국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반 테러전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라크 문제와 북한 문제는 모두 9.11 이후 급격히 변화한 미국인의 세계관에서 도출된 국제이슈들이다. 미국은 적에 대한 개념 규정, 이들에 대처하는 방법 등 군사전략을 통째로 바꾸었다. 최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하는 북핵문제는 먼저 미국의 군사 전략적 맥락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힐 수 없는 체제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정치적 움직임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외교, 안보, 전쟁사 등에서 해박한 논리전개를 펼치고 있는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을 초빙하여 세계 전쟁사에 기인한 미국의 군사력을 알아보고 6자회담 및 한미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간개발경영지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순표 세스코 회장

동국대 농학과 졸업 / 동국대 농학 석·박사 / 농
 립부 국립농촌경제연구소 농촌개발과장 / (주)전우
 방제 회장 / (주)전우약품 대표이사 / (사)한국방역
 협회 회장 / (사)아시아, 대양주방역연합회(FAOP-
 MA) 회장 / (사)한국수출입식품방제협회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강동구 상공회 초대회장 / 서울상
 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위원장 / (주)팜클 회장
 <상훈> 국민훈장 목련장(국민보건복지 향상)
 <저서> 쥐의 생태와 방제, 작물보호사전, 해충방제
 학 요론

3D업종을 첨단기업으로 만든 세스코의 세계화 전략

1428회 11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쥐를 잡아 한해 백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있다. 국내 쥐박사 1호, 한국판 '피리 부는 사
 나이'로 불리는 전순표 회장은 지난 76년, 전 우주를 방제하겠다는 포부로 전우방제를 설립하였
 다. 이후 2000년 가정용 방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스코'라는 이름으로 경영혁신에 성공하여
 아시아 최대규모의 방제회사가 되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세계시
 장 공략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해충방제업이라는 3D업종을 첨단업종으로 변모시키기까지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
 었다. 농림부 시절 양곡창고 관리를 맡으면서 쥐가 대량의 쌀을 축내는 것을 보고 쥐에 관한 연
 구를 시작,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후 '쥐잡는 날'을 제안한 것도 전 회장이었다. 쥐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과감하게 창업을 결심했으나 당시 돈 내고 쥐를 잡아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
 기에 수개월 동안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후 해충의 소탕을 위한 백과사전 8권 분량
 의 메뉴얼북과 전산시스템, 홈페이지의 Q&A코너에서 고객의 지나가는 질문하나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고객 감동경영, 내부직원을 최고로 대우하고 존중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다수의 팬클
 럽을 가진 인기기업이 된 것이다. 한편 이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대양주 방역국제대회에
 서는 참석 기업 중 100개사가 세스코 방문을 조건으로 대회 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전순표 회장을 초빙하여 30년 전 해충방제업이라는 블루오션을 선택하여
 최첨단산업으로 키운 세스코의 변화혁신과 세계화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 제10회 사법시험 합
 격 /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대한변호사협
 회 이사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
 장 /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장 / 법무법인 신화
 대표변호사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
 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본
 부장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
 제6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세
 계엠브즈협회(IOI) 부총재
 <저서> 기업법대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성숙한 인권국가로 가는 국가 사회적 과제

1429회 11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얼마 전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세계 58위로 발표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피해자와 인권단체의 열정과 헌신성에 기대어 발전해왔음을 감안
 하면 우리의 인권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계기는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
 면서부터이다.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01년 '독립적 인권전담기구'로 출범한 인권위는 그간 인식하지 못한 각종 침해·차별행위를 '인
 권'의 범주로 해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인권의 개념을 심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단
 면들이 존재한다.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투자 없이 법제개선이나 인권교육을 통한 의식변화의 노력은 그 한계가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고향인 고흥군에서 판사로 정년퇴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거쳐 올
 4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조영황 위원장을 초빙하여 인권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사회
 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러관계

정태익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제142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0월 6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지금 동북아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그 동안 한반도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을 맺어 오면서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과 같은 분단상태로 계속 변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한반도를 창출해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대응전략

최근 10년간 동북아에서 일어난 두드러진 현상을 보면 우선 중국의 대두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은 고속경제성장과 동시에 최근 군사대국과 우주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서 세계에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성장에 의해서 미일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고이즈미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국민들을 바탕으로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지난 10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15년 전 소련연방이 해체된 러시아 역시 그 간 옐친과 푸틴 대통령을 겪으면서 특히, 최근 유가상승과 푸틴 대통령의 정치경제 개혁정책이 효과를 발하면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현재의 질서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통해 우리의 진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동북아에 평화번영을

열겠다는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독일이 양독관계를 개선하는데 우선하지 않고 구주통합이라는 지역통합정책에 우선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성공하여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고 EU탄생의 산파역을 해냈다. 우리는 독일이 독일 자체의 힘과 더불어 통합된 구주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또한 양독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구주통합을 이루고 동독을 경제권에 편입시켜



완전한 통일을 이룬 점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역적인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역협력체를 창출해 통일시키는 다자적인 접근이야말로 우리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전략이 될 것이다. 북한과 똑같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경제정책의 성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안보전략에 있어서 확고한 청사진을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갈 때 동북아질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본다.

역사에서 배우는 균형자론

지난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는 자

강해야 한다는 인식이고, 둘째는 강대국들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청국과 러시아와 각각 전쟁을 했고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는 일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것처럼 주변 강대국들이 갈등구조를 가지면 한반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협력관계로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균형자론에 성공한 사례가 유럽의 구주통합이다. 유럽은 과거 자원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자원경쟁을 시작하였다. 그로 인한 분쟁관계는 결국 전쟁을 일으켰고 파멸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결과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된 유럽은 새로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도전을 받는다. 이에 응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통합이다. 유럽은 통합의 수단으로 철강과 석탄을 공유하고 시장통합을 이루어 오늘날의 EU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올해 새로이 10개국이 추가되면서 25개국이라는 거대유럽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의 축 필요

EU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 때문에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변경하고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영국과의 동맹 때문이다. 그만큼 동맹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고도 오늘날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동맹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처럼 분단된 상태로 안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잘 돼 통일을 이루고 대륙과 연결해 대륙과 해양이 연결된 한반도, 세계물류의 중심이 되는 한반도를 꿈꾼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협력의 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한·러관계를 새로이 조망하고 강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사적 진로를 새롭게 인식하고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시각으로 오늘날의 현상을 본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전략적 국제관계 형성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만명이고 영토는 1700만km²로 한반도의 78배에 달한다. 미국과 비교해도 1.8배가 큰 면적이다. 거의 지구의 반에 걸쳐있는 거대한 나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75년간 수백만 명의 피를 흘려서 공산혁명을 이룬 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연방으로 탄생할 때에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선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체제로는 러시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였다. 또 하나 고르바초프의 페르스트로이카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그의 원래 목적은 사회주의를 개혁을 통해 강화하는 것이었지, 공산체제를 해

체하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사태가 진전되면서 결국 자신까지 몰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붕괴 원인은 매니지먼트의 실패라고 본다. 공산주의의 좋은 이념에서 출발했지만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매니지먼트가 잘못돼서 국가경영에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책의 선택과 효율적인 집행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푸틴 대통령 정권 후 가장 큰 일은 대통령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러시아는 89개의 지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자치권한이 매우 강하다. 경찰권마저도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을 정도이다. 반면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연방 세 분야에 관해서만 장악한다. 러시아는 미국식 헌법을 선택해 국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까지는 주지사가 자동적으로 상원이 되고 89개 주에서 선출한 한 명의 상원의원으로 상원을 구성한다. 그런데 주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연방의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에 방해되는 모든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연방대통령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법개정을 통해 이를 막았다. 그리고 러시아를 7개로 나누고 대통령 대표를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한편, 세법을 강화하고 단순화시켜 세율을 낮추고 조세기반을 강화해 재정을 튼튼히 하였다. 여기에는 운도 작용하였다. 아무리 개혁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대외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고유가로 인해 재정이나 경제면에서 6%가 성장하고, 브릭스(BRICs)의 멤버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푸틴이 집권 2기를 출범하면서 표방한 것이 2010년까지 소득을 배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일인당 GNP가 4000불 정도인데 이를 배가하겠다는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EU나 과거 소련을 이루고 있던 CIS국가와의 강화를 다지고 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열친시대 때 남한일방주의 정책에서 남북한 등거리의 균형외교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동맹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교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갭이 존재한다. 그에 비해 우리는 활발한 교역과 12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 한러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사실 김영삼 정권 때 4자회담을 할 때는 러시아가 배제되면서 한러관계가 그다지 발전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자적인 접근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에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질서에 있어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다. 그 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양자적인 동맹관계에 의해서 안보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런데 다자주의가 채택되면서 러시아가 6자회담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매우 만족스런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러시아와 수교할 때 30억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반인 15억불만 지불하였다. 그리고 연체됐던 나머지는 내가 책임하고 있는 동안 모두 해결되었다. 지금 러시아는 외환보유고가 1700

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 다음으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이다. 러시아도 98년에 재정위기를 당했다가 극복했는데 이는 개혁정책 성공도 이유겠지만 국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했기에 가능했다. 한편 미국과 전략적인 반테러의 협력관계를 맺어 미국의 힘을 얻어 G8국가가 되었다. 러시아는 이 외에도 EU나 나토와 협력 관계를 다져가고 있다.

한반도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러시아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많은 협력관계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높은 기초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경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개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했으나 우주항공분야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2007년에는 우주인을 탄생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우주인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로켓을 공동 제작해 발사한다는 의미이다. 로켓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리의 과학기술 파트너로 선택되었다. 이미 많은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의 연구소에 진출해 있다.

러시아는 통일된 한반도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국가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전략적인 관계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만만치 않은 상대일뿐더러 그러한 강대국들로 인해 한반도에 진출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양국가로 연결되는 것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략이다. 그 같은 자신들의 전략실현을 위해 통일된 한반도야말로 러시아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1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단 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의 부채문제로 인해 협력관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있어 채권 국가이지만 북한은 러시아에게 채무 국가이기 때문이다.

연해주에 주목하는 전략적 이유

우리는 러시아의 연해주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북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푸틴은 극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연해주 지역으로 진입하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심각한 안보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동지역을 개발코자 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중국은 두렵고 한국을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선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일찍이 연해주지역에 많이 진출했지만 잘 안 된 이유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차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되어 있어서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해주에 진출해야 한다. 현재 사할린에서 석유와 가스가 나오고 있다. 사실 오늘날 석유위기는 원유 문제가 아니라 원유를 얼마만큼 정제하느냐 하는 능력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원유 형태로 팔고 있는데 일일 평균 8백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에서 8백만 배럴 이상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둘 뿐이다. 그만큼 러시아는 생산량의 반을 수출하여 세계의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러시아에 진출해야 하고 특히, 연해주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정책이 접점을 이뤄 러시아의 연해주가 개발되면 한반도에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유입인구를 남쪽으로 빼는 대신 북방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적인 기지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연해주에 주목해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이고, 그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회사와 국가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한 노력이 바로 TSR&TKR 연결 문제이다. 문제는 과연 가스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북한을 통과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석유가스파이프를 통해 서유럽의 3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유럽은 50% 가량을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파이프라인이나 가스관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베리아의 석유가스가 새로 발견되어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인프라가 구축 중에 있다. 이에 한국도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한중일 협력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세 국가는 모두 에너지소비국가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1만불 시대의 한계점에 달해 새로운 경제동력에 대해 부심하고 있다. 나는 주장한다. IT, BT, EIT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외교와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지역을 창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능성이 유라시아지역에 있다. 그렇기에 한러친선협회와 같은 포럼과 모임이 중요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 개척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 포기는 동북아 평화 질서의 핵심

마지막으로 북핵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왜 핵을 선택했느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동맹에서 이탈하면서 중국 또한 한국과 수교를 맺는 것을 보고 한 마디로 악몽을 겪게 된다.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유수단을 강구하게 되면서 남북격차가 30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핵이었다. 그런데 세계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핵을 가지면 힘의 균형상 점차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평화의 지역이 아닌 분쟁의 지역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은 세계 안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를 이룩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하면 그 때 관계를 정상화하는 순서를 구상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우선 적대적인 의도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입증으로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면 마지막에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분명 요소는 같은데 우선 순위가 서로 다른 것이다. 타협의 접점을 찾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외교로써 해결해야 한다. 우선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핵 폐기를 시작하는 대신 어느 적절한 중간단계까지 폐기가 이루어졌을 때 협력을 진행해 접점에 이르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핵의 완전폐기와 동시에 협력의 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외교 전략과 협상기술이 필요하다. 한반도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 역시 남북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다.

한반도를 협력의 진원지로 만들어 대륙으로 진출해야

국제화 문제가 되면 장단점이 있다. 일단 이 문제들이 해결만 되면 다자구조가 된다.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양자적인 관계보다 4강과 친선적인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다자적인 구조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북한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한국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화해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고 지역을 안정시켜 세계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창출해내야 한다. 일찍이 러시아의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비전에 동감하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추종자들이 제도화될 때 비로소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한반도는 과거 100년 동안 분쟁의 진원지였다. 이것을 협력의 진원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비전과 이를 간절히 열망하는 국민, 제도화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말은 쉽지만 실현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가 처해 있는 현실은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 위기와 기회라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에는 인간의 지혜, 정책, 전략 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유라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섬과 같은 상황을 반도적인 상황으로 바꾸고, 이것을 다시 대륙으로 이어나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성에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다. 나 역시 우리 국민들이 작은 반도가 아닌 넓은 대륙으로 나아가 호연지기를 펼칠 것 같았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인들과 국민들이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을 더욱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나는 그 길목에 어떠한 일이든지 반드시 실현시켜 하나의 밑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 **人間**



사진 오경근 원장

가장 세계화된 우리 민족이 21세기를 주도해나갈 것

이원설 한국기독교교회연맹 이사장

"21세기를 이끄는 위대한 역사적 사역은 우리 민족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인들은 강력한 주변국의 개입, 방해, 침략에 저항했고, 한국전쟁 후에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우리만의 독자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공부한 이원설 박사는 세계적인 석학이자 기독교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한 '선택된 민족'의 개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천년의 고난을 이겨온 우리 민족도 하나님 나라의 '선민'으로서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하는 마음을 지닌 리더가 부족한 '리더십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이원설 박사를 만나 한국 기독교의 현실진단과 함께 세계를 포용해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저력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원설 이사장 1930년 생 / 美 오하이오 노던대 정치학과 졸업 / 美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역사학 박사 /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 경희대 대학원장, 부총장 / 한남대 총장 / 교육부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 / 한국기독교대학연합회 회장 / 기독교리더십연구원 이사장 / 아시아태평양 기독교교회연맹연합회 명예회장 / 연세대 기독교문화회 부회장 / 숭실대 이사장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연구원 초창기부터 저희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75년 연구원이 창설되고 제7회 연구회 강사로 참여하면서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선히텔로 기억되는데 장 회장님의 큰 포부와 비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거창한 꿈과 비전이어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도 했어요. 그러나 그 후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지난 2002년까지 총 10회를 초청 받아 강연하면서 연구원이 이루어온 업적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연구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강연할 때마다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위대한 동력 중의 하나로서 연구원을 자랑해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이 매주 목요일 새벽에 나와 각계의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대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임의 횟수가 1400회를 넘어섰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으며, 듣는 사람들도 놀라움의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장 회장님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한국기독교교회연맹, 기독교리더십연구원 등에서 활동 하시면서 'Christian Pax Koreana' 시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해결 과제는 무엇이고,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라틴어의 'Pax'는 평화를 뜻하는 말로써 'Pax Romana - 로마의 평화'가 뜻하듯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Pax Koreana'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95년 서울대 조동성 교수가 조선일보에 '팍스 코리아나'라는 기사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조 교수님의 주장은 결코 한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 가장 빈곤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3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니 온 세계 후진국들의 '개발모델'로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널리 보급하자는 주장이죠. 그러나 1997년 말 시작된 IMF 위기로 인해 팍스 코리아나라는 말이 다소 퇴색된 느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IMF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해외교포 650여만명은 적어도 175개국 이상에 퍼져 있습니다. 유대민족 분포의 2배이며, 중국 화교 분포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으니 한민족은 21세기에 가장 '세계화'된 민족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니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전경험, 우리의 실패경험, 우리의 개혁과 새로운 민족적 비전을 나누어 주는 'Pax Koreana'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Christian Pax Koreana'를 주장하는 이유는 1945년 해방 당시까지 남북한 합하여 50만명의 신도를 가졌던 교회가 오늘날 1200만명의 신도를 헤아리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교회를 지목하려면 그 절반이 한국에 있으며, 오늘날 1200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140여개국에 복음을 전함을 생각할 때, 크리스천 팍스 코리아나라는 외침은 가능하다고 믿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교인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교인 수와 건물 등 교회가 너무 외형에 치우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기회(機會)'의 합성어라는 말과 같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주기도문을 이루기 위한 온 교회적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노력이 눈에 보입니다. 예컨대 최근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 1200만명의 신도들이 3.1운동 때의 민족애를 가지고 뭉친다면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고 믿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로 표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 리더십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교육, 문화, 윤리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은 '리더십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짜군,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Gerald Ford)는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신용의 갭(Credibility Gap)'이 넓어지면 리더십의 위기가 온다고 했어요.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정치의 힘이 강해지면서 정치리더십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클라렌스 웨임스(Clarance Weems)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위기발전론'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리더들이 위기를 인식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 오히려 위기가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특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들 '용기를 가진 사람', '솔로몬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 '자기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자기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가진다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만 잘나서 리더를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정신 자체가 리더로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미국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공부하시고 많은 원어 서적도 출판하시는 등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사회의 리더십과 이를 통한 미국의 장래에 대해 전망해주시죠.



▶ 각종 세미나 및 모임에서 강연활동을 펼치는 이원설 박사



▶ 제77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사로 나선 이원설 박사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고르바초프가 실각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쓴 <The End of History>라는 책이 있는데 '역사는 끝났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리로 미국과 같은 나라는 더 이상 없고 인류가 구하던 완성모델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것이죠. 또 제임스 팔로우(James Fallow)는 <More Like Us>라는 책을 냈는데,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게 배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 미국은 주변국들이 필요 없는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앨런 블룸(Allan Bloom)은 미국이 군사력, 경제력, 지력으로는 최고지만 결국 정신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신력이 피폐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앞으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우리끼리만 잘 살자'라는 몽고주의(Mongolism)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역사학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조금한 판단이 앞으로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군사력, 경제력, 지력을 지닌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에는 '정신'이 없어요. 사실 중국은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 결국 경제발전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민족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중국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4세대들은 문화혁명 때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주도하거나 세계를 안을 사람이

많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미국은 필요 없다거나 미국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적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 말고는 체제를 지킬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북한에게 양보하라고 할 수 없는 문제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정권을 교체한다거나 중국처럼 서서히 개방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체제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북한이 제일 믿고 있는 것이 남쪽의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과 세력이 있다고 믿는 그들은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남한이 북한 경제를 계속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압록강 주변에 중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미국,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정책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목회자 육성은 기독교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 교육에 견주어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961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학교수를 할 때 한달 월급이 100불이 채 안 났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65년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장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육을 통해 1000불 시대를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이 200불 정도였으니 이해하기 힘든 소리였죠. 그런데 우리는 30년 후 1만불 시대를 만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공헌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재를 육성해야겠다는 데 생각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원이 주창하는 '인간개발'은 국가발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지적 능력개발 뿐만 아니라 심성개발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도덕성과 윤리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여러 저서도 출판하셨는데요. 기독교 지도자로서 인류 미래에 관한 철학적 깊이가 느껴집니다.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나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20세기를 이끌었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와 현대를 연결하는 거시적 입장에서 집필한 필생의 역작으로 1934년~54년까지 20년간 쓴 책이죠. 20년 동안 세계를 바라보면서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71년 출판되어 국내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된 <혁명시대의 미래관>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79년 시카고에서 발행한 <Beyond Ideology>와 <Christian Worldview and Historical Change> 같은 영문 서적은 미국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로서는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볼 때, 토인비와 같이 세계를 넓게 보자는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과거 생산중심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이 시대 대학의 사명에 대해 말씀 해주시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무조건 일류대학에만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공도 자녀들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출세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죠. 성경을 보면 각각의 사람에게는 상이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을 타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을 잘 파악해서 그 재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의 변화부터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컴퓨터를 활용해 학습하는 사람이 학자들을 포함해 6.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게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한 도구로 컴퓨터를 사용하죠. 이것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한국말을 모르고 영어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계 전반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윤리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철학 때문인가요. 늘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건강관리보다는 술과 담배를 멀리 하고 평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 몸담고 있을 때에는 15년 동안 오후 시간에 운동장을 달리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공기와 물이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뭇잎에서 나오는 산소와 맑은 물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하더군요. 이 날, 이 나이까지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그 동안 저희 연구원의 각종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연구원 이념에 적극 동참하시고 초창기부터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30년의 전통을 이어 앞날을 준비하는 연구원의 비전은 정말 진취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지방의 균형을 이루어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습과 650만 해외동포들을 어우르는 '글로벌 코리아스 네트워크' 형성은 연구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미래상을 보는 것 같아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산·학·종·관·정의 강사진을 두루 다루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30년의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당당한 여성의 동반자 남성도 읽고 싶은 여성언론 우먼타임스

신숙희 우먼타임스(주) 사장



"보슬비에 옷 젖듯이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진정한 공감대를 얻어내는 힘있는 소리가 되어 여성들이 신바람 나고 당당하게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 여성과 남성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당당한 여성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01년 3월 조심스레 첫발을 내디딘

우먼타임스가 시사여성주간신문으로서 창간 4주년을 넘어 5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독자 1명의 질책과 격려 뒤에는 10명, 100명 독자들의 소리 없는 응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달려온 덕분이다.

21세기는 여성 부가가치 활용이 경쟁력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색깔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 본질의 차이이거나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서로 맞부딪칠 때 행동은 다르게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1987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한국의 여성들을 보면서 남성보다 아래 등급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정과 사회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영원한 동반자이지 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실력도 갖추었지만 우리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여성성의 특성이 더욱 가치를 발하고,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될 시대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여성은 어려서부터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외유내강형으로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었다. 매킨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우 남성 인적자원은 더 이상 활용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여성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핀란드는 10여년 전만 해도 국가경쟁력이 20위권 밖이었으나 최근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핀란드는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모두 여성이다. 정부관료의 45%가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부정부패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돼

우먼타임스 창간 4주년과 때를 맞추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한국의 성차별과 반인권의 족쇄가 되어왔던 호주제가 이제 민법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양성평등사회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우먼타임스는 창간 이후 여성계의 역점 사업들, 특히 호주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온 여성계의 목소리를 다양한 기획과 특집으로 구성,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호주제를 옹호하는 남성들의 시각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성숙한 양성평등사회의 기틀이 모두 마련된 것은 아니다. 17대 총선을 통해 40명의 여성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최근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에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여성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2004년 한국의 여성 권한척도는 78개국 중 68위로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여성들이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호주제와 같이 제도로 남아있던 차별의 잔재가 사라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직장내 성차별과 가정의 가부장적인 문화도 여성과 남성의 조화를 위해서 그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女망 담아낸 소중한 빛 우먼타임스

신숙희 사장 1951년 생 /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졸업 / 조선대 가정학 석사 / Warton School & Drexel Univ.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이사 /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100인 전문가클럽'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21세기여성CEO연합 부회장 /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자문위 위원 / 국회 여성정책포럼 자문위원



9월 28일 우먼타임스가 주관한 제16회 서울여성백일장



▶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사)사랑의 친구들 모임에서



신수현 사장과 우먼타임스 가족들



▶ 지난 4월 5일 개최된 제2회 밝은세상건강걷기대회

그 동안 우먼타임스는 상업일간지와 비주류여성지를 뛰어넘는 굴직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특히 여성의 눈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일상적 영역을 바라보고 양성평등의 논점으로 보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읽는 여성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은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라는 도발적인 장간호 특집기획으로 주목을 받은 우먼타임스는 히딩크 감독의 여자친구 엘리자베스 히나스 단독인터뷰, 첫 여성총리지명자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단독인터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우조교 실연 사건 특종, 엄마 성을 쓰며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선 개그우먼 김미화씨 관련 특종,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초과 수납실태 관련 특종, 군대 관련 여성들의 의식 설문조사 등의 기사를 발굴해 독자층을 넓혔다. 또한 우먼타임스는 여성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인지적 입법 발의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이자 조인자 몫을 하고 있으며, 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등의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세밀한 눈으로 보도해 남성독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키워주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숨가쁜 호흡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먼타임스는 '가는 비에 옷 젖듯' 부드러운 태도로 독자들에게 양성평등 감수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먼타임스는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열쇠를 생활과 밀착된 영역에서 찾고 있다. '평등결혼식을 올립시다', '성매매 뿌리뽑자', '아버지 문화 바꾸기' 등의 캠페인과 '커리어우먼 맵', 'NGO 여성이 된다', '유리천장 깨트리기 프로젝트' 등의 기획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에게 '살아 숨쉬는 정보'를 살구빛 고운 지면에 담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밝은세상건강걷기대회'는 가정과 사회, 국가가 보육의 짐을 나눠지는 공보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화행사로 주목받았다.

남녀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여성언론 주춧돌

우먼타임스가 4년만에 여성언론의 대표주자로 나서게 된 것은 창간 때

부터 시작된 두 가지 고민에서 출발한다. 기존 다른 신문들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컨셉의 신문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신문을 가지고 여성주의 매체로서 어떻게 대중성을 확보하는가 하는 고민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여성의 역량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생활밀착형 편집방향으로 담아내는데 주력하였다. 낯선 여성의 눈으로 사회 곳곳의 현상을 포착하고 해석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과 이제까지 학습되어 왔던 남성 중심의 통념으로부터의 탈출, 대안과 새 비전 제시는 늘 도전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새 세계로 발을 내딛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이 되고 있다.

또한 우먼타임스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 박권상 전 KBS 사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고 오종남 통계청장, 고도원 전 대통령 연설담당 비서 등 14명의 편집위원이 디디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상래 성도GL 사장, 박형식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장영철 경희대 교수, 정진호 경쟁력평가원 원장, 이병화 신라대 전 총장 등 각계에서 활약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를 고정칼럼으로 게재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읽는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매의 눈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성시대 이끌 것

우먼타임스는 앞으로도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성인지 사회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있는 주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의 여성들을 조명하는 한편 미혼모, 외국인 이주 노동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에도 눈길을 빼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시대'라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우먼타임스는 양성평등의 구현으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는 날을 위해 '매의 눈'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人聞**

21세기 이제 변해야 산다

서상록 前 삼미그룹 부회장

제1회 서울 동작구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월 27일(화)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개강 강연을 가진 "직업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본원과 동작구청이 공직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정보·지식·무한경쟁의 21세기 시대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9월 27일 "21세기 이제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제1회 강연을 해주신 서상록 전 삼미그룹 부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인생에서는 여러분보다 조금은 선배입니다. 제가 지식은 전달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생활에서의 지혜와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 노하우', 즉 '암묵지(暗黙知)'라고 합니다. 저의 암묵지를 여러분의 암묵지와 접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연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는 것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 '사람 팔자 알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63년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 고향이 경북 경산인데, 그 때 우리동네에 친구들이 12명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꿈은 딱 한가지밖에 없어요. 커서 부자 되면 쌀밥

서상록 前 부회장 1937년 생 / 고려대 정외과 졸업 / 대우증권(주) 사장 / 美 골드웰투자(주) 사장 / 美 공화당 중앙상임위원 / 삼미그룹 부회장 / 호텔 롯데 센트론 컨설파이터 / 한국 바텐더협회 상임고문 / (사)청소년사랑 품앗이 봉사단 이사 / 노련당 대통령 후보, 명예 총재 / (주)서상록닷컴 설립, 대표이사 /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 석좌교수 / 서울외국어대학 원대학교 부총장

에 고깃국 배터지게 먹는 것입니다.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상록아,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살다보면 부자 될 날이 오겠지. 그럼 쌀밥하고 고깃국이야 실컷 안 먹겠냐?" 그러나 우리집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60년 가까이 흘러서 제 나이 환갑, 진갑 지난 나이에 식당에서 웨이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이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이터 생활에서 대통령 출마까지

그런데 웨이터라고 하면 그냥 음식만 나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니까 다리가 아파서 집에 가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한 1개월 지나니까 발이 통통 부었어요. 아침에 구두를 신으면 어제 신었던 구두에 제 발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리 아픈 건 둘째고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식당에 취직을 하고 나니까 오후 4시에 저녁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4시 30분에 집합해서 청소하고 셋팅하고 분시 받고 하다보면 4시에 먹은 식사는 벌써 소화되고 없습니다. 이렇게 배가 고프다보니까 아무리 흠쳐먹지 말라고 해도 자꾸 빵을 흠쳐먹게 됩니다. 저녁시간 되면 손님 얼굴도 죄다 빵으로 보이니까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빵을 흠치게 되는데, 제가 제 자식보다 어린 선배한테 두 번이나 걸려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는 매일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유를 못 찾고 세월이 지나서 1년이 됐는데 누가 와서 나보고 CF모델 한 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모델 하냐고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광고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데 왜 못하냐고, "하이마트로 가세요." 여덟 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하루종일 수 백 번은 짝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시 제 월급이 7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64만 7천원인데 말 여덟 마디 하고 받은 봉투를 화장실 가서 보니까 7천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말 몇 마디 하고 7천만원 받으니 세상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음으로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 제가 우리나라 텔러트조합 회원입니다. 방송인협회 회원이예요. SBS 방송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프로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으니 방송인 아닙니까. 또 SBS '돈닷컴'이라는 연속극에 바텐더 역할로 7개월 동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낸 저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지>라는 책을 써서 4천만원이 넘는 인지세를 받았어요. 제가 책을 못 쓴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신문 박용정 사장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책을 쓰라고 합니까. 이 어려운 IMF시대에 어디서 태어났고 왜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갔고, 고려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미국은 왜 갔고, 왜 웨이터가 됐는

지 일기를 쓰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기장을 써서 책 저자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부총장도 해봤습니다. 또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팔자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뒤에는 따뜻한 봄이 오기 마련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도 자연의 이치와 꼭 같더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오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70년 인생을 반추해 보면 수많은 겨울도 있었고 따뜻한 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마 눈보라치는 겨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겨울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봄이 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참고 견뎌니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자연과 같습니다. 매일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따뜻할지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든 간에 내 인생에도 봄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과거는 잊고 새출발

제가 다니던 삼미그룹이 1997년에 부도나면서 부끄러워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월 2일,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가 돌아가면서 의학잡지 하나를 두고 갔는데 거기 마지막 장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죽지 마라!' 무슨 소린가 했더니 2005년까지만 죽지 않으면 지금 못 고치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평균 연령이 최소 97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가만히 생각하니 나도 2005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7세에서 62세를 뺐더니 35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간 과거는 잊어버리자. 지금 시작해도 얼마든지 시간은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거나 하자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직업을 구하러 다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웨이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경비하시는 분 계시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경비라는 직업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갔는데 생각하고 틀렸습니다. 세 곳을 갔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당신 환갑, 진갑 다 지난 것 같은데 도둑 보면 격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알아본 것이 골프장 안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분명 나보다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병원의 안내원을 해보려고 갔더니 중년 부인들이 봉사로 안내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는 안내원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이 웨이터입니다. 1998년 4월 1일, 3개



월만에 구한 직업이 식당 웨이터입니다. 제 나이 62세가 돼서 웨이터를 시작해 5년 동안 했습니다. 만약 제가 97세까지 산다면 아직도 28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97세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세요.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체연령이 30대입니다. 그리고 정신연령은 20살로 박혀있습니다. 1998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취직을 해서 점심수업이 끝나고 인사하러 갔더니 열 다섯명의 선배들이 있어요.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나이, 경력, 학력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시키는 대로 다하겠습니다."

제가 열 여섯 번째 웨이터로 들어갔는데 바로 위에 선배님이 21살이었습니다. 제가 모셔야 할 선배님들의 평균연령이 26.7세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제가 엘리베이터 잡고 선배님 먼저, 내릴 때도 선배님 먼저, 한번도 선배님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시내에서 소주 마시고 삼겹살 먹을 때도 한번도 소주잔 먼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배님 먼저였습니다. 20대와 생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스무살로 착각하고 살게 돼요. 제가 고려대 57학번입니다. 옛날에는 동기 모임 가면 친구 같았는데 웨이터 2년하고 동기모임을 갔더니 우리 아버지 모임에 와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친구 같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부터는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자기 일에 미치면 인생이 변한다

저는 웨이터 하면서 최고 연봉으로 1억원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웨이터 되는 것이 11~12년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처음 들어가서 설거지만 4~5년 해야 합니다. 우리 호텔에 식기 종류만 48종이 있습니다. 식기 이름 다 외워야 하고, 닦는 방법, 말리는 방법, 보관하는 장소 모두 틀립니다. 이 분야에 베테랑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승진하면 버스보이(bus-boy)가 됩니다. 제가 버스보이 하다가 그만뒀어요. 음식을 데우고 손님 테이블 옆에 갖다놓으면 웨이터가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 나오면 들고 주방에 가져다 줍니다. 웨이터가 되려면 칵테일을 만들 줄 알

아야 합니다. 적어도 50종은 맛도 알고 손에 익어야 해요. 와인도 100종 정도는 냄새 맡고 가격 알고 원산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와인 스쿨도 가고 칵테일 스쿨고 가고 국가시험도 쳤어요. 남이 10년 걸리는 것을 저는 5년 걸려서 끝내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단골손님 1000명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0명의 손님이 우리 식당에 한 달에 한번씩만 오면 1년에 수십억원을 벌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연봉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3년이 넘어서고 선거 때가 됐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는데 정작 개혁의 대상이 어디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해야겠다. 설사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지 보름만에 웨이터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기탁금이 5억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유권자의 98%가 내 출마사실도 모르는 상태이고, 2%가 알고는 있지만 나를 찍어줄지도 모르는 일이니 등록하면 돈을 날리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죽는 인생 자기한테 한번 미쳐보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5년,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는 것이 혁신 변화의 시작

우리가 혁신,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일 못한다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려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집에서도 자녀들 성적에 대해 꾸중하기보다는 다독겨려 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창의력, 친화력,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정직하고, 고객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성공합니다. 표정과 말은 여러분이 바꿔야 합니다. 웃는 연습은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연습도 그래요. 상대의 장점을 살려주는 인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큰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만 가지면 나이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등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어요. 나 자신이 1등 브랜드가 되어야 하고 경쟁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어야 오래 살고 건강해 집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절대 쉬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없으니 협동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돼야겠다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자기가 올라가려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따라 가야지 이걸 밟고 올라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한번은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적이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 강연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공무원은 국가의 핵심적 인간자본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전남 장성군에서 '한국의 장성군'으로, 한국의 장성군에서 '세계의 장성군'으로 변화와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어 화제 거리가 되고 있다. 무명의 장성군을 일약 한국의 장성군으로 변화시킨 화제의 주인공은 장성군의 CEO 김홍식 군수이다. 김홍식 군수가 장성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오늘의 장성군을 만들어 놓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다"인 것이다.

최근 장성군의 기적 같은 성공신화 **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출판계는 물론 사회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3년 전에 인간개발연구원 3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양병무 박사이다. 연구원에 와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양 박사가 <주식회사 장성군>의 저자로서 큰 명성을 날림과 동시에 장성군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드디어 큰 일을 해내고 있음을 통해 'Better People Better World운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얼마 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에 위원자격으로 참석해 조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표적 지도자들과 함께 위원회가 3개월에 걸쳐 준비한 주요 업무보고,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인사자율성확대 실적 및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공무원 교육에 관한 관심이 큰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자본이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과 자제가 긍정적이거나 곱지 않다는 느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시대변화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비스의 질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은 아닐까. 장성군의 김홍식 군수는 '행정은 서비스다'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경영마인드를 발휘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장성아카데미는 산업사회가 지식·정보·문화·인간의 사회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 21세기 교육이 그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고 재무장시키는데 주효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식·기술·정보·문화혁명시대에 인간자본은 경쟁력이며, 다음 세대에 지식자본, 정보자본, 기술자본, 문화자본을 전달하는데 바르게 교육된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 전달매체라는 것을 장성아카데미를 통한 공공교육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사정책자문회의에서 "모든 정부기관의 기관장들이 장성군의 CEO 김홍식 군수처럼 교육자적 사명을 지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그 본래의 우수한 자질을 살려 세계 어느 나라에 내 놓아도 자랑할 만한 우수한 인간자본으로 키워나가는데 행정목표를 두고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 인사행정과 공무원 교육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인사교육 담당기관이 각 기관의 CEO들을 도와서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제가 이루어지도록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하였다.

공무원을 국가자산 중에 핵심적인 인간자본으로 바꾸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발휘하는 인간존중의 애국심이 우리 국민을 우수한 국민으로 바꿔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격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전인교육에 의한 인간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새뮤얼 스마일즈의 <인격론>이 최근 출간됐다. 그의 인격론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발행인 편지를 끝맺고자 한다.

"국민성을 보호·발전시키지 않는 국가는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 공평함의 미덕을 더 이상 찬미하지도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는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물질적 부로 인해 부패하고 쾌락으로 타락하고 당쟁으로 이성을 잃은 국가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할 때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국민들 개개인의 고귀한 성품을 되찾아 더욱 발전시키는 것뿐이다. 그 길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다면 그때는 아무 것도 구원할 가치가 없다." **人間**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강희선 철도인력개발원 서비스아카데미 CS부 부장

그럴수록 더 웃자



표정과 관련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
 "오는 사람마다 인상을 굳고 오는데 저라고 웃음이 나오나요?"
 "오는 사람마다 제 속을 긁고 가는데 저라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부서는 일도 많고 요즘 실적도 없는데 웃음이 나오겠냐구요."
 "고객을 맞이하는 접점부서 직원들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니 제가 직원들 볼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감정이 들지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웃어야 한다. 고객의 경우 직원이 처한 입장을 이해해 주기 만무하다. 보통의 경우 즐거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웃음을 지으며 자연스런 감정을 드러내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보통의 경우와 다르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웃어야 하고 괴로울 때도 웃어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씨익' 하고 웃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경우의 웃음은 고객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해석되어 일이

심각해질 것이다. 고객이 화가 나서 퍼붓다가 돌아가더라도 자신의 입장이나 일을 탓하기 보다 "그래, 이 정도 참고 친절하게 했으면 정말 잘했어. 그래 한 번 웃어 보는 거야."라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고객의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고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감정을 긍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고객은 화를 내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자신만 속을 끓이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참고 응대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지 못했을 때보다 몇 배 낫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임스와 덴마크의 랑케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즐거워진다."라는 심리이론을 발표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괴로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일부러라도 한 번 웃어 보자. 결과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하자

얼마 전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다녀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는지 서로 부딪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었다. 옷 집 앞을 지나는데 옷이 좌판 아래에 떨어져 있길래 "어머, 옷이 떨어져 있네요." 라고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시큰둥하게 옷만 받고 반응이 전혀 없었다. 머쓱하니 웃으며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면서 지나치는데 뒤에서 들리는 그 옷가게 주인 목소리, "누가 뭐라고 했어요?" 순간 잘못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기대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일전에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시간을 좀 바꿀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더니 단번에 "안 되겠는데요."라고 통명스럽게 돌아온다. 고객이 피치

강희선 부장 1965년 생 / 이화여대 영어교육학 석사 / 대한항공교육원 과정 수료 / 성균관 전통예절대학 수료 / 코오롱패션산업연구원 교육과정 수료 / 교류분석(TA) 전문강사과정 수료 / 대한항공 선임승무원, 서비스아카데미 전임교수 /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위원 / 경희의료원 서비스 심사위원 / 수원여대 초빙교수 / 한국여성교양학회 교수

못할 사정이 생겼기에 예약변경을 문의한 것일 터인데 꼭 그렇게 통명스럽게 대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굳이 직설적으로 부정적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 지? 이왕이면 고객에게 긍정적 표현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건값을 깎아 달라고 할 때도 그렇다. 그냥 곤란하다고 하면 될 것이지, "제가 그 돈 드릴테니사와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독하게 말하는 상인도 있다. 자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은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서비스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객에게 독하게 응대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감히 생각한다. 기업이든 장사든 결국은 마찬가지로이다.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해줘야 가게 운영이 되고 회사 경영이 된다.

고객이 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고객과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가 아니다. 일상 대화는 의사전달이 목적일 수 있지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달방법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상냥함이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접점직원들은 현장에서 가장 정중하고 친절해 보이는 접객용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객을 접대할 때 굳이 유창하거나 달변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객과의 신뢰와 호감을 살 수 있는 표정과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고객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단으로써 목소리의 높낮이나 억양, 속도, 정확한 단어의 사용 방법에 의해 같은 의미가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예부터 말은 인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단이었다.

서비스 현장 최 접점에서 근무하는 서비스맨들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하는 것이다.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 듣는 자세부터 점검해야 한다. 중간에 말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만큼 경청은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 중요하다.

사실, 수많은 고객을 대하다 보면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객과의 성공적인 대화는 고객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서비스맨도 사람인 이상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는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격렬히 항의하던 고객도 바른 자세로 잘 들어주고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상황을 만들어 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혼자 진정하며, 게다가 사과까지 하는 고객도 있다. 그만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감정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人間**

회원&연구원소식

■ 회원소식

• 동파이프 생산업체인 (주)다산의 **윤영상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동파이프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동파이프 물류센터" 오픈식과 본사 사옥의 리모델링 완공식을 겸한 자리를 지난 10월 20일(목) 본사 사옥에서 가졌다.

• **두상달 대표이사(칠성산업)**는 2005 가을 부부행복학교에서 "가정 행복 Up-grade"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8일(금)~29일(토)까지 양평 쉼빌 호텔에서 교육을 가졌다.

• **월간 골프가이드(강민지 사장)**는 창간10주년 기념으로 '쫄깃쫄깃한 웃음 4집'을 출판하였다. 이밖에도 10년 넘게 축적해 온 골프정보와 잡지 제작 노하우를 토대로 골프관련 서적들의 출판을 추진하고 있다.

• **SH공사(이철수 사장)**는 11월부터 영구 임대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 **한국아쿠르트(김순무 사장)**의 간판상품인 기능성 발효유 '월'이 판매에 날개를 달게 되었다. 월의 광고모델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배리마셜 박새(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가 올해 노벨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제품의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더욱 공인받게 된 것이다.

• **CEO컨설팅그룹 강석진 회장**은 매경에서 주최하는 "제8회 명사미술타(회장 강석진)"를 10월 5일(수)~11일(화)까지 인사동의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경영자와 교수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 (사)서울그랜드오페라단(이경애 이사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페라 "La Traviata(춘희)"를 아래와 같이 공연한다.

-아 래-

- 일 시 : 11월 4일(금, 19시 30분),
11월 5일(토, 15시 30분, 19시 30분),
11월 6일(일, 19시 30분)
- 장 소 : 한전아츠플렉서

• **코리아나화장품(유상옥 회장)**은 피부 보호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10월 5일 공시했다. 코리아나는 이 발명품을 활용해 고기능성 주름개선이 가능한 보습 화장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 **우리은행(황영기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해균 이사장)과 협약을 맺고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인당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 (주)한국주택신문사(회장 이심)는 지난 9월 22일 '주간 노년시대(가칭)' 창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와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주간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최근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노년문화 창달을 위한 대변지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편 한국주택신문사와 대한노인회는 '주간 노년시대'를 발간하기 위해 신규 법인 (주)노년시대사를 설립하였다.



• **오타케 요시키(大竹美喜) 아메리칸패밀리생명보험(AFLAC) 최고고문**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간되는 'ASIA INSURANCE REVIEW'에서 선정한 "아시아 보험산업 대상(ASIA INSURANCE Industry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일본 재계에서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경영자로 꼽히는 오타케 최고 고문은 1974년 AFLAC을 창업하면서 당시에 이름조차 없던 '암 보험'을 성공시켜 회사를 일본 개인보험업계 1위로 성장시킨 주인공으로 지난 2월 3일 제138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

♣ 회원사 정보변경 안내

• **Big Dream&Success (공한수 사장) 사무실 이전식**

- 일 시 : 10월 28일(금) 오후 3시~8시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 HUB B동 402호
- 전 화 : 02-774-3230 · 팩 스 : 02-757-3230
-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 6번 출구 가운데 빌딩과 연결통로 있음(승용차 주차가능)

• **지멘스(주) (박종백 상무)**

- 새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번지
킨스타워(KINS Tower) 27층
- 전 화 : 031-784-6200 · 팩 스 : 031-784-6100

• **풍수지리신안계물형학연구소 (박민찬 원장)**

- 새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5-1(백안빌딩 502호)
- 전 화 : 02-566-4443 · 팩 스 : 02-566-4420

■ 신규회원



정태익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대사
 · 주 소 : 서울 시 서초구 서초2동 1376-2
 · 전 화 : 02-3497-7670
 · 팩 스 : 02-3497-7745
 · 추천인 : 장만기 회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



김진희 ESODO 총괄기획팀장
 ·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 전 화 : 02-3219-5940
 · 팩 스 : 02-2653-7145
 · 업 종 : 콘텐츠 제작사업
 · 주생산품 : 문화, 예술, 자연 콘텐츠
 · 추천인 : 장만기 회장(한국인간개발연구원)

인태평 미림조경 사장

· 주 소 : 경기 과천시 주암동 90-1
 · 전 화 : 02-504-2581
 · 팩 스 : 02-504-2585
 · 추천인 : 남기현 총재(한국NGO지도자총연합)

임미경 대불대 음악과 교수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36
 · 전 화 : 02-3476-5030
 · 팩 스 : 02-3476-2030
 · 추천인 : 고지석 회장 (고지석세무회계사무소 회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모임소식

· **인목회(회장 김정배)** 제42차 10월 정기모임은 지난달 26일 (1)자식과의 세대차? 그러면 손자와의 세대차는? (2)미국 골프장 운영을 보며 느낀 진정한 고객만족경영은? 등의 주제로 참석 회원들과 활발한 토의와 함께 친목을 나누었습니다.

· **인경회(회장 이심)** 10월 월례경기가 지난 10월 26일 한양C.C에서 있었습니다.

· **지중해클럽(회장 박돈서)**은 10월 정기모임을 19일 이대에서 가졌습니다.

· **이중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욱)**은 제219차 10월 정기모임을 지난달 31일 신사동에서 가졌습니다.

· **이중기업동우회 2그룹(다락회)** 11월 정기모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아울러 2006년도 다락회의 신입회장으로 박세직 청소년마을 총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아 래 -

일시 : 11월 1일(화) 오후 6시30분
 장소 : 서울클럽(장충동 02-2238-6493)

· **한러친선협회(회장 유중하 / 이사장 장만기)**는 지난 10월 13일(목)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클럽 알렉산드로비치 이바센초프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를 환영하는 오찬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임은 정부인사, 대사관 관계자, 언론인을 비롯하여 네티피아, 대우인터내셔널, 롯데건설, 무역협회, CYBER MBA, 삼성물산, LG상사, 태창철강 등 러시아 관련기업에서 협찬과 함께 CEO 및 임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편 이 행사는 향후 양국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우호적 협력증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한러친선협회가 한러 양국의 교류확대를 돕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관동실업(주) 김석기 회장**의 자녀인 김남윤 회원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21일(월)
 · 장 소 : 롯데호텔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1일)
MMG(주)	최규일 대표이사	(11월 1일)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2일)
(주)비츠로그룹	장순상 회장	(11월 8일)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회장	(11월 10일)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 10일)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욱 회장	(11월 15일)
(주)주택문화사	이 심 사장	(11월 18일)
서울도시가스	배경운 회장	(11월 28일)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 26일)

■ 연구원소식

• 양병무 원장 대통령자문기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수) 오전 새롭게 출범하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위원장(송위섭 아주대 교수) 및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나눴다.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양병무 원장을 비롯하여 송위섭 위원장,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윤정숙 대안사회연구소 소장 등 11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로써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위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불안, 기술·산업구조의 급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업·국가 경쟁력 향상,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하나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 위원회는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소식

• 봉화군 지역혁신리더과정 개강

경북 봉화군(군수 류인희) 주최, 본원 주관으로 지역 지도자들의 의식변화와 발상전환을 통한 지역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봉화군 지역혁신리더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수석연구위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건강웃음연구소 박동선 소장, 양곡정책심의위원회 이정환 위원장을 모시고 개강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훌륭한 강사를 모시고 지역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은 물론 폭넓은 지식과 교양 함양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철원군 하반기 열린학습관 개강

강원도 철원군(군수 문경현)과 본원은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21세기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반기 열린학습관'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한 열린학습관에 이어 하반기 열린학습관 개강식은 10월 25일 태평양시대위원회 김동길 이사장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향후 첨단지식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청하여 열린학습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진도 아리랑축제

전남 진도군(군수 김경부)은 11월 1일~5일까지 5일간 군내 일원에서 진도가 간직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진면목을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2005 진도 아리랑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남도만요전국경창대회'를 비롯해 지난 5월 영국 켄넬클럽과 세계애견연맹에 등록돼 세계 명견 반열에 우뚝 선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릴 '진돗개 전국품평회'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짚공예 만들기, 서화그리기, 풍물배우기, 진도 소리·민속 체험하기, 불멸의 충혼이 살아 숨쉬는 고려 삼별초의 역사체험, 전통 흥주 빚기, 흥주 캣데일 쇼, 천연염색체험 등의 체험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LMI & YOU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EPL 66기 Pilot 과정 진행 중

한국엘엠아이에서는 지난 9월 24일 본사 강의실에서 EPL과정을 개강하여 현재 4주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시작부터 중요한 성과를 경험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학습 열기가 사뭇 뜨겁다.

■ (주)세움리더십인터내셔널 EPL과정 개강

세움리더십인터내셔널은 10월 19일 군포 리더스클럽에서 '성공하는 리더들의 퍼스널 리더십' 과정을 개강하였다. 세움에서는 군포와 수원 지역에서 LMI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받아 참가자들의 추천으로 이번 7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BIG DREAM & SUCCESS 제24차 수료자 모임

- 일 시 : 11월 14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BIG DREAM & SUCCESS 교육장
- 강 사 : 김양호 원장 / 한국언어문화원
- 주 제 : "리더의 스피치 파워"
- 참가대상 : LMI 수료자, 가족, 친구, 일반인 등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한국엘엠아이(주)
Tel, 2202-8700 / Fax, 445-2086
www.lmikorea.com

한려수교 15주년 기념 한려친선협회 후원

오페라 이순신 한려 합동공연



한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이순신 서울공연이 한국과 러시아 예술가들의 합동공연으로 KBS홀에서 공연됩니다.

1998년 시작된 오페라 이순신은 8년에 걸쳐 한국,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40여회의 공연을 통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왔으며, 금년 공연은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에 치중되었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장 고니시와 왜구들이 마을을 불사르고 백성을 괴롭히는 장면과 박초희를 잡아다 애첩으로 삼고 있는 장면, 박초희가 조국을 괴롭힌 악마 고니시를 죽이려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반주부분과 성악부분에 뮤지컬적인 역동성을 보강하였으며, 이순신이 선조 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과 마지막 전사장면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과 함께, 독도문제와 6자회담 등 나라사랑에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성곡오페라단 단장 백기현

◆ 공연 안내 ◆

- 일 시 : 12월 3일(토)~4일(일) 오후 3시, 오후 8시(공연시간 1시간 30분)
- 장 소 : KBS홀
- 주 최 : 오페라 이순신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밤계)
- 후 원 : 한려친선협회(회장 유종하) / 주한 러시아대사관 / 한러의원협회(회장 장영달 의원) / KBS
- 입장권 : R석 150,000원 / S석 100,000원
- 문 의 : 080-485-6933 구분속

* 공연 티켓을 예매하시는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에게는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BEST 1, BIG 3에 도전하는 TOYOTA

- On Demand, Just in Time 전략의 요체

전상백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 도요타박물관의 로봇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시찰단

• 도로를 달리는 도요타자동차의 IMTS

본원에서는 최근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많은 시도들 가운데 끈질긴 노력과 개선으로 도요타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5일(일)~27일(화)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방직기 공장에서 출발한 도요타가 이렇듯 세계 최고의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한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도요타식 생산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시찰단은 한국도요타자동차의 협조 아래 본원 회원사 및 관계사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 현지 도요타자동차를 시찰하고 관련 세미나와 더불어 일본 문화시찰을 통해 선진경영철학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찰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전상백 회원의 글을 통해 3년 후 미국 3대 자동차메이커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도요타의 '열풍'을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1937년 방직회사로 출발한 도요타는 1947년 업종을 바꾸어 첫 소형차 모델 'SA'를 출시한 이래 1997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자동차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를 삼킨 거대한 신화 'LEXUS'의 명성으로 벤츠나 BMW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는 명차 대열 'Best 1'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생산 면에서도 Chrysler를 제치고 GM, FORD에 이어 2008년에는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 'BIG 3'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도요타의 경영혁신은 '개선'에서 시작

지난 9월 25일 산업시찰의 일환으로 도입한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및 시찰단 일행 30명은 기업도시 도요타(豊田)시에 도착, 일본경제신문사 하세가와(長谷川) 편집국장이 강연하는 "도요타자동차의 경영혁신기법"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강연 요지는

- 1) 이 회사는 도요타가(家)의 특수유전자(DNA)를 이어 받았고(창업자 도요타 시키치는 발명가였음)
- 2) 위기감을 항상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改善-가이젠)을 추진

하고(경영자는 만족하면 끝난다)

- 3) 협력업체와의 특유한 생산유대를 구축하여 Defect Zero를 지향하고
- 4) 노조의 분규와 임금인상이 거의 없이 노사협의체제가 원만하고
- 5) 직원의 창의제안제도를 제도화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 6) 부품의 적기 적량 공급의 이행과 Just in Time으로 생산을 능률화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요지를 평하자면 도요타는 기업이 대대로 상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改革)이나 혁신(革新)이 아닌 개선(改善)이라는 강력하지도 않은 슬로건을 내걸고도 세계를 제패하는 꿈(BEST 1 / BIG 3)을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나 생산현장과 협력회사 방문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또 다른 기업의 경영철학을 배울 수가 있었다.

On Demand, Just in Time

그것은 우리가 쉽게 버리는 전통적인 경험의 지혜를 도요타에서는 DNA(By searching the old, learn the new)로 전수 받고 있으며, 급작스럽지 않은 지속적인 가이젠(改善 - Steady & Innovation)을 통해 강인한 발전적 기반(Intelligent infra)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라인에서는 3시간씩의 소요(On Demand)부품만을 단위 공정별로 패키지화하여 재고 없이 적시에 외부에서 반입, 라인속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조립 완성하는(Just in Time) 엄격한 생산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음이 도요타 우수성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와는 두터운 신뢰구축으로 부품 하자율 1PPM(거의 무결함)을 실천함으로써 기업경영방식에서 타를 능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급되고 있는 'Lexus Model'은 고급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연비, 무결함, 가격 면에서의 우수한 품질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요타라는 완벽주의가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임이 틀림없다.

도요타와 협력사의 신뢰관계

현대의 하이테크 기술은 우수한 요소(要所) 기술이 융합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요타 협력 각사의 핵심부품은 차량의 성능 향상에 절대영향을 주고 있는데 도요타는 협력 각사와 협품회(協品會)와 영품회(營品會)의 두 줄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는 기술면과 경영면에서 각사의 사장이 직접 챙기는 협력기구이다. 이 협력업체의 대표격인 하기와라(萩原)전기(주)는 IT, 유비쿼터스 등의 응용 솔루션으로 도요타차량에 가치부여를 하는 프로모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005 Aichi Expo Japan

도요타 그룹이 위치하는 도요타(豊田)시는 원래 고로모(學母)시의 이름이었으나 도요타의 생산시설이 확장되면서 도요타시로 개명된 인구 36만명의 기업도시이다. 마침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2005 Aichi Expo Japan(愛知萬博)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자연의 예지(叡智) - Natures Wisdom'이라는 주제로 121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지



• 나고야성을 방문한 시찰단



• 일본경제신문의 하세기와 편집국장 강연 후



• 도요타의 개선정신을 터득할 수 있었다는 전성백 회장

일본 도요타자동차 시찰단 참가자							
1	(주)광인	김성갑	전무	16	지엠비코리아(주)	이재병	상무이사
2	(주)광인	김세윤	상무	17	코리아나화장품	유학수	부사장
3	(주)동성진흥	김한주	상무	18	코리아나화장품	김행호	부장
4	(주)동아수출공사	이우석	회장	19	태광전력(주)	이경백	사장
5	(주)모간	박성훈	사장	20	태광전력(주)	권남숙	
6	(주)부천	이시원	시장	21	태광전력(주)	나병삼	상무
7	세원화성(주)	이민기	상무	22	태광전력(주)	이건국	소장
8	세원화성(주)	최종민	대리	23	태광전력(주)	이건용	소장
9	수성(주)	김정태	이사	24	태광전력(주)	전현철	소장
10	신명글로벌비스(주)	최해규	회장	25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회장
11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26	(주)한남산업	김재철	대리
12	와이제이교역(주)	김용정	회장	27	한국캐피탈(주)	정범훈	전무이사
13	SH공사	배경동	이사	28	LTS(주)	박세훈	사장
14	인간개발연구원	정만기	회장	29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15	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	30	일본 아이오리대	조우진	교수

난 3월부터 열리고 있었다. 행사 중 기업관, 일본관, 도요타관이 인기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도요타가 출시한 IMTS(Intelligent Multimode Transit System)차에 눈길이 많이 쏠렸다. 한편 이번 만박협회장도 도요타쇼이찌로(豊田章一郎)가 맡고 있었다.

도요타의 영향력

금년 초 일본은 나리타(東京)국제공항과 간사이(大阪)국제공항에 이어 3대 국제공항으로 나고야에 주부(中部)국제공항을 개항하였다. 이는 일본 최초의 민간출자공항으로 도요타 등 민간기업이 51%를 출자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 단계부터 도요타식 원가절감시스템을 적용해 완공한 공항이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공항의 히라노 유키히사 사장 역시 도요타 이사와 도요타 계열사인 간토(關東)자동차공업 사장을 거친 도요타자동차 출신으로 민간공항 경영에 철저하게 도요타의 가이젠 정신을 적용하여 매일 진화하고 발전하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짧은 2박 3일의 일정을 유용하게 활용한 이번 여행에서 도요타가 보여준 착실히 정진(精進)하는 가이젠 정신을 터득하고, Aichi Expo가 시사하는 자연의 예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人問)



공자와 노자의 만남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2500년 전에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바로 공자와 노자의 만남이다. 공자는 노자보다 30년쯤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 그 시절 노자는 이미 인품과 영향력 면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었다. 공자 역시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지만 노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자는 노자를 만나기 위해 험난한 여행길에 나선다. 공자의 나이 47세에 자신의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 노자가 있는 주나라로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기원전 506년에 역사적인 만남의 순간을 갖는다.

유교와 도교의 역사적 만남

이 만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신비스러운 대 사건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양사상의 두 축을 이루는 유교와 도교의 원조들의 만남이었기에 그렇다. 공자가 노자에게 학생처럼 질문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최인호의 소설 <유림>을 통해 살펴보자.

"예(禮)란 무엇인가요?"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숙이 감추고 있어 얼핏 보면 점포가 빈 것처럼 보이듯 군자란 많은 덕을 지니고 있으나 외모는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것일세. 그러니 그대도 제발 예를 빙자한 그 교만과 그리고 뿔도 없으면서도 잘난 체하는 말과 헛된 집념을 버리라는 말일세."

언뜻 보기에 어른이 아이를 충고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 노자는 신선처럼 고상해 보이는 반면 공자는 무언가 자리를 좇아 출세를 지향하는 속물 같은 이미지도 풍긴다. 이 때의 만남으로 인해 공자는 노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치적인 자리에 연연하는 해바라기 같은 지식인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게 된다. 하지만 공자는 노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현실론자로 돌아서서 王道政治의 실현을 부르짖는다. 물론 노자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이상주의자와 자연주의자의 보완관계

공자는 고국으로 돌아온 후 제자들에게 "노자는 용과 같은 분이셨다."라고 설명한다. 공자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서 때로는 그물을 치고 낚시질을 하고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노자는 그물로도 화살로도 그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용이었다. 하지만 공자는 노자가 말하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無爲의道'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새를 잡고 물고기를 낚는 인간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한다. 그래서 공자는 노자와는 달리 뜻을 세우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有爲의道'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공자와 노자는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다르다. 공자가 현실 참여적 이상주의자라면 노자는 현실 도피적 자연주의자다.

공자와 노자는 동양사상의 두 축을 이루며 절묘한 보완관계를 형성한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후진들은 현실정치에 뛰어들어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양을 하고 지배계층의 길을 걷는다. 반면에 현실을 좇기보다는 자유의지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식인 또는 힘이 없는 민중들은 노자의 사상을 따라 도교로 발전해 나간다. 소위 제도권과 재야의 갈림길이 여기서 생긴다. 제도권 인사들은 참여 속의 개혁을 부르짖는 반면에 재야인사들은 세상은 어차피 근본적인 개혁이 어려우니 괜히 흉탕물에 몸을 담그지 말 것을 권유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재야인사가 생겨났지만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제도권으로 들어와 현실정치의 혁신에 뛰어든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제도권과 재야는 어떤 관계인가. 재야가 있기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을 인식할 수 있다. 재야가 제도권을 위해 거울의 역할을 함으로써 궤도 이탈을 방지해 준다. 다시 말하면 공자가 있기에 노자가 빛나고 노자가 있기에 공자가 빛나는 것이다.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혁신을 모색하는 공자에게서 삶의 고뇌를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을 초월하여 유유자적하는 노자의 모습에서 자유를 느낀다. 이렇게 위대한 두 인물의 보완효과를 통해 동양 사상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다수의 공자와 소수의 노자가 필요한 사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공자와 노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인생에 대한 태도가 중요시 된다. 조직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공자와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나는 나를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我待買者也)"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치이상에

공감하며 자신을 발탁해 줄 군왕을 찾고 기다리는 공자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을 확대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뛰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상인을 기다리는 공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를 미리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 설정도 공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일일지 모른다. 무슨 목표를 정하고 사는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바람 부는 데로 물결치는 데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은 노자처럼 하늘을 날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겨날지 모른다.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넥타이에 목이 매인 상태로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롭기
남도(南道)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문득 시인 박목월 선생의 '나그네'란 시가 현대인의 양면적인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는 복잡한 세상사를 모두 잊어버리고 구름에 달 가듯이 나그네처럼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은 마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얽히고 설킨 인연을 고려할 때 현실을 뚫어나와 세상 밖으로 훌쩍 털고 달려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물론 삶 자체를 노자처럼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수의 공자와 소수의 노자'가 필요한 것이다. 다수가 노자처럼 사는 것은 이상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마치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지만 삶 자체를 나그네처럼 살 수 없듯이.

주 5일제 실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쉬는 것도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휴식은 재충전을 의미한다. 삶의 질을 모색하는 여유도 찾아보자. '주중에는 공자처럼 치열하게 주말에는 노자처럼 여유롭게' 살면 어떨까.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시간만이라도 노자처럼 사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공자와 노자가 만날 때 보완효과를 통해 인생의 깊이와 삶의 질이 그 만큼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人間



세종대왕의 리더십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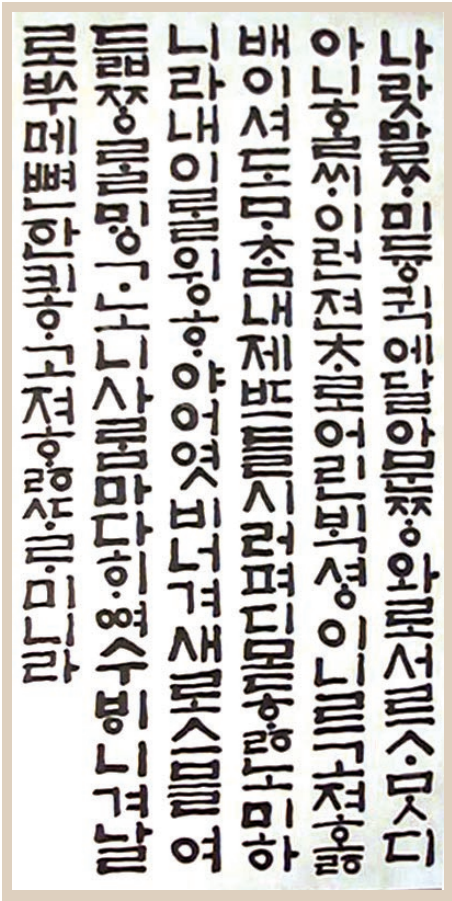
나라의 일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은 좋은 지도자를 바라게 된다. 어느 시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도자의 질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나라나 공산주의 나라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국민이 찾아내야 하고 국민이 만들어내야 한다.

한글날을 계기로 세종대왕의 국가경영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는 듯하다. 확실히 세종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 이 분의 업적을 회고해보면 배울 것이 많지 않겠는가. 세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잠재의식 때문일 것이다.

세종은 3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탁월한 치적을 남겼다. 배울 것이 무한히 많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세종으로부터 교훈을 얻자면 세종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이나 세종을 배울 수 있겠는가.

세종의 생각과 성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종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다른 임금에게는 없었던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의 치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 나라를 이상적인 유교국가 즉, <예기>에 있는 대동사회(大同社會)의 나라로 만들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스스로가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이 되겠다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본다.

그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의 공부는 시문(詩文)이 아니었다.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한 공부였다. 그는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 우수한 젊은이를 골라 집현전을 만들어 이들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유교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 수양에 힘썼다. 그는 효자였고, 형님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는 유교의 보급에 힘썼으나 불교에 대해서도 응분의 배려를 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달랬다. 그는 만사에 절제와 균형을 중시했다.

그는 엄청난 참을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세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10여년이 걸렸고, 중요한 문제(이틀테면 북벌 개시)를 결심하기 위해서 그는 궁중에서 큰 토론회를 열어 조신(朝臣)들의 의견을 들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조사도 했다. 그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군왕이었다.

세종은 많은 성공을 했지만 모든 경우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의 동북부·서북부 정벌이나 대마도 정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중국(당시의 명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극진한 사대(事大)의 예로 대했다. 실사구시에 입각한 외교노선이었다.

그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한문을 모르는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있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문의 발음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중국을 본받기를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날의 민족주의적 시각만으로 한글 창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우리가 얼마만큼 세종을 배울 수 있겠는가. 세종과 같은 높은 이상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가. 그만큼 절제, 균형, 인내, 근면, 그리고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은 과연 표를 찍어주겠는가. 확신이 없다. (人間)



공무원이 경영하는 회사 '장성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고을의 성공신화!

공무원과 군민이 하나 되어 역경을 딛고
새로운 장성을 창조해 내는 혁신 스토리.
10년의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공무원은 물론 마을 사람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었다. 학습사회 건설과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에게 장성군은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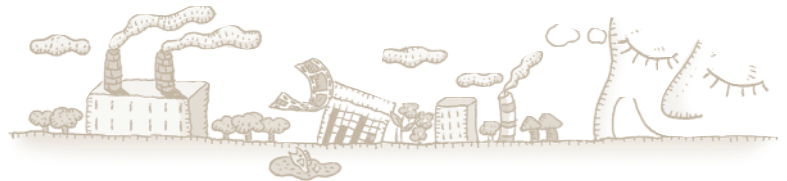


공무원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회사 장성군

양병무 지음 | 222면 | 양장 | 12,000원

장성아카데미 십 년의 교육, 흥길동 캐릭터 개발, 공무원들의 유럽 배낭연수, CI와 BI의 활용, 공장과 기업유치 이야기 등 장성군의 성공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곧바로 영향을 주어 이 땅의 지자체 전체가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본문 중에서

- 장성은 대한민국 10년 지방자치의 최고 성공작이다. -이달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10년간의 꾸준한 학습을 통해 장성군을 활기찬 학습도시로 만들어낸 군민과 공무원의 변화가 실로 놀라울 따름이다. -허성관(전 행정자치부 장관)
- 장성에 가면 언제나 감동과 희망이 샘솟는다. -문국현(유한킴벌리 사장)



스타병원!

대한민국 의료계의 새로운 별이 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8월1일 개원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병원로비로 바로 연결됩니다.